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에 대한 한국학계의 연구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김성곤

서울대학교

문화대혁명이 발발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이에 대한 한국학계의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외국학계의 연구현황과 비교하여 많이 뒤져 있다고 판단된다. 양적인 연구부족은 주제의 다양화에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심지어 한국에서 문화대혁명 연구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문화대혁명이라는 연구주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며 중국연구 전반에 걸친 문제일 수 있다. 다른 한편, 과거 한국에서 중국연구를 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연구환경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만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 독자적인 시각을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개인적 노력도 매우 부족했다는 점인데, 이는 자료이용 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외국학계에서는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연구물에 만족하지 않고 문화대혁명에 대해 보다 새로운 연구를 진행중이다. 이는 한편으로 과거와는 달리 자금은 중국현지에서의 생생한 자료수집을 통한 연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지금의 중국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에서 중국연구를 보다 축진시키기 위해서라도 문화대혁명에 대해 새로이 바라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요구되며, 지금부터라도 연구물들이 축적되어야만 할 것이다.

I.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¹⁾에 대한 한국학계의 연구현황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연구의 문제점을 밝혀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해 보는 동시에 더 나아가 한국의 중국연구의 문제점도 추론해 보려는 하나의 작은 시도에 있다. 문화대혁명은 중국

¹⁾문화대혁명(1966-1976)의 공식명칭은 1966년 8기 11중전회에서 채택된 소위 16개조 결정(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關於無產階級文化大革命的決定)에 나타난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이다. 한편, 문화대혁명의 시기구분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다. Hao Ping은 몇가지로 정설화된 문화대혁명의 출발점을 재평가해야 함을 주장하고, 기존의 오합비판 시기(1965년 10월) · 5.16통지 시기(1966년 5월 16일) · 모택동의 대자보 공개시기(1966년 5월 25일)를 비판하고, 문화대혁명은 이보다 훨씬 바른 북경대의 사회주의 교육운동 시기(196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Hao, Ping, 1996, "Reassessing the Starting Point of the Cultural Revolution," *China Review International*, 3(1), Spring, pp. 66-86. 또한, Heilmann은 문화대혁명에 관한 일률적인 시기구분은 문제가 있으며 이슈별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Sebastian, Heilmann, 1996, *Turning Away From the Cultural Revolution: Political Grass-Roots Activism in the Mid-Seventies*, Center for Pacific Asia Studies at Stockholm University, Occasional Papers 28, September, pp. 4-5.

자체 뿐만 아니라 중국을 연구하는 학계에 미친 영향도 지대하였다. 주지하듯이 이 사건은 그 이전까지 중국연구를 지배했던 연구모델인 전체주의 분석틀에 의문을 제기하고 중국엘리트 내에서도 파벌정치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제공하여 중국연구의 일대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다.²⁾ 또한 문화대혁명은 오늘의 중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개혁개방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발전방향 전환의 계기는 바로 이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대혁명이 중국연구에서 차지하는 이러한 비중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현황파악으로는 한국학계의 연구가 그다지 잘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더 나아가 한국에서의 중국연구가 단절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 한다. 개혁이후의 연구에 대하여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진행중이고 연구물들도 어느정도 축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개혁이 있기까지의 결정적 사건으로서의 문화대혁명에 대한 연구는 소홀한 채로 연구주제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서이다. 최근 외국학계에서는 문화대혁명에 대한 연구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그 원인은 문화대혁명 연구를 위한 가용자료와 수단이 증가했다는 사실 뿐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가 현재의 중국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이 충분치 못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도 한국학계가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지금껏 어떻게 연구를 진행해 왔는가에 대해 한번쯤 물음을 제기해 보고 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로부터 밝혀지는 몇가지 문제점들로부터 미력하나마 앞으로의 문화대혁명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볼 수도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문화대혁명 연구 현황으로부터 바라본 한국적 문제점의 일면도 생각해 봄으로써 보다 나은 중국연구를 촉진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논의를 한정하기 위하여 문화대혁명에 관한 연구의 범위는 시기적으로 1966년부터 1995년까지로 하고, 대상은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물(특히, 연구업적이라 할 수 있는 석·박사학위 논문과 국내 주요 학술지에 실린 글)만으로 할 것이며, 비교분석을 위하여 *The China Quarterly*의 연구현황이 도입될 것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세부분으로 이루어 지게 된다. 우선, 문화대혁명에 관한 연도별 연구현황을 정리할 것이다. 그 목적은 연구의 양적인 측면을 보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는 외국학계의 연구량 그리고 국내의 다른 주제의 연구량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해 질 것이다. 둘째, 주제별로는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연구의 양적인 제약이 주제별 다양화에 어떠한 제약을 가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제가 연구되었고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짚어 볼 것이다.셋째, 연구자료의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어떠한 자료를 사용했고 자료의 이용은 충분했는지에 대한 검토와 이것이 문화대혁명 연구에 가한 제약은 무엇인지를 추론해 볼 것이다.

²⁾Harry Harding, 1984, "The Study of Chinese Politics: Toward a Third Generation of Scholarship," *World Politics*, 36(2), January, pp. 298-301.

II. 한국에서의 문화대혁명 연구현황과 그 문제점

1. 연도별 연구현황

필자의 집계에 의하면 1966년부터 최근 1995년까지 지난 30년동안 한국에서 문화대혁명에 관한 연구는 총 15건에 이른다.³⁾ 이 중 석사학위 논문은 7건, 박사학위 논문은 2건, 그리고 국내 학술지에 실린 글은 6건으로서 박사학위 논문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를 시기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편의상 1966년부터 1995년까지를 5년 간격으로 나누고 6기로 구분하여 보면, <표-1.1>에서 나타나듯이 1기에는 0건, 2기에

³⁾ 한국에서의 문화대혁명 연구실적에 관한 자료는 1996년 4월 국회도서관의 전산자료를 통해 얻은 것으로서 다음과 같으며, 출간된 시기별로 나열하였다. 덧붙여, 최근에 나온 CD-ROM 타이틀인 『국회도서관 문헌정보 No. 1 1996: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 논문총록, 정기간행물 기사색인』(1996년 12월 18일 발행)에서는 국회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소장하고 있지 않은 문화대혁명 관련 자료를 몇 건 세로이 포함시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필자는 기존에 수집한 자료만으로도 한국의 연구경향을 보여주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들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누락된 자료에 대한 분석미비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 배영희, 1975, 『중공의 문화혁명: 모택동 사상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
- 김하룡, 1975, 『중공의 정풍운동과 문화대혁명의 전개과정에 관한 고찰』, 고려대 박사학위.
- _____, 1976, 문화대혁명에 있어서 극좌파 숙청에 대한 해석, 『중국문제』(한양대, 구중소연구), 1(2), pp. 203-224.
- 박준홍, 1976, 『중소이념분쟁과 문화혁명』, 동국대 석사학위.
- 고성준, 1978, 중공문화혁명에 있어서 대자보운동, 『자유아카데미연구논총』, 제7집, 9월호, pp. 434-473.
- 김선형, 1978, 『중공군의 정치적 기능에 관한 연구: 문화혁명을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
- 이홍영, 1979, 중국혁명의 딜레마: 문화혁명의 기원, 『중소연구』(한양대), 4(1), 4월, pp. 7-44.
- 최의철, 모택동, 1982, 주은래와 문화대혁명, 『중소연구』(한양대), 6(4), 겨울, pp. 85-140.
- 고성빈, 1985, 『중공문화혁명에 있어서 홍과 전의 정치적 갈등』, 경희대 석사학위.
- 이희옥, 1986, 『중공문화대혁명의 기원에 관한 연구: 노선투쟁모델의 입장에서』, 외국어대 석사학위.
- 이승협, 1992, 『모택동의 사회주의관에 관한 일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 김성애, 1993, 『중공문화혁명기에 있어서 인민해방군의 역할: 모택동의 군사사상과 관련 하여』, 부산대 석사학위.
- 한인희, 1993, 문화혁명과 권력투쟁, 『중국연구』(건국대), 제12집, pp. 167-184.
- 고영근, 문혁중, 1994, 홍위병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경향, 『중소연구』(부산외대), 창간호, pp. 11-22.
- 김경옥, 1994, 『문화혁명시기 대중운동에 관한 일 연구: 문화혁명 초기 상해를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
- 한편, 국내 주요 학술지의 하나인 한국정치학회보(韓國政治學會報, 1959년 창간, 중단되다가 1967년부터 다시 매년 1회 간행되기 시작했고, 1986년부터는 매년 2회 간행되고 있다)에는 문화대혁명에 관해 실린 글이 지금껏 한 건도 없었다.

는 2건, 3기에는 5건, 4기에는 2건, 5기에는 1건, 그리고 6기에는 5건으로 각각 집계된다.

<표-1.1>

건수 (백분율)

연구 \ 시기	1기 1966~1970	2기 1971~1975	3기 1976~1980	4기 1981~1985	5기 1986~1990	6기 1991~1995	총계
석사 학위	0	1	1	1	1	3	7 (46.7)
박사 학위	0	1	1	0	0	0	2 (13.3)
학술지	0	0	3	1	0	2	6 (40)
총계	0 (0)	2 (13.3)	5 (33.3)	2 (13.3)	1 (6.7)	5 (33.3)	15 (100)

이로부터 나타나는 시기적인 특징은 첫째, 한국학계에서는 배영희와 김하룡이 2기 말인 1975년에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인『중공의 문화혁명: 모택동 사상을 중심으로』와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인『중공의 정풍운동과 문화대혁명의 전개과정에 관한 고찰』을 각각 발표함으로써, 문화대혁명이 빨발한지 거의 10년이 되어서야 이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외국학계 가령, 대표적인 중국학술잡지인 *The China Quarterly*⁴⁾가 문화대혁명이 발생한 1966년에 즉시 이에 대한 반응을 보여 연구를 시작한 것과는 비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1기와 2기 당시의 국내학계가 중국전문학술지 하나 없는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중국연구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자료와 연구자 또한 부족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둘째, 3기에는 총 15건 중에서 33.3%인 5건으로서 비교적 많은 연구가 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이 시기에 국내에서의 중국연구에 대한 장을 본격적으로 열었다고 할 수 있는 한양대『중소연구』(中蘇研究)⁵⁾가 발간(1975)되기 시작했고, 또한 외국학계에서 그동안 이루어 놓은 문화대혁명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등 연구환경이 비교적 나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4기와 5기의 경우에는 3기에 비해 점차적으로 연구실적이 감소하다가 90년대인 6기에 들어 다시 연구실적이 늘어나 5편의 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90년대에 들어 한국의 중국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라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셋째, 문화대혁명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이에 대한 전문가의 배출을 위하여 박사학위 논문이 중요시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석사학위 논문이 총 15건 중 7건인 45.7%를 차지하고 매시기 별로도 꾸준히 출현하는데 비하여 박사학위 논문은 2기(1975)와 3기(1979)에 김하룡의 글과 김선형의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인『중공군의 정치적 기능에 관한 연구: 분

⁴⁾ *The China Quarterly*는 University of London의 Contemporary China Institut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에서 1960년부터 계간지로 발행하기 시작했다.

⁵⁾ 한양대『중소연구』는 1975년 12월에『중국문제』(中國問題)라는 명칭으로 매년 1회 발간되다가 1979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소련연구』(蘇聯研究)와 1980년에 통합되었고, 1982년부터는 계간지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매년 1회 발간하는『중국연구』(中國研究)도 1975년부터 나오기 시작하였다.

화혁명을 중심으로』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분명 문화대혁명 연구의 확산과 발전에 제약을 가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표-1.2>

건수 (백분율)

시기 비교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총계
China Quarterly	21 (43.8)	10 (20.8)	9 (18.8)	3 (6.3)	5 (10.4)	0 (0)	48 (100)
한국의 연구현황	0 (0)	2 (13.3)	5 (33.3)	2 (13.3)	1 (6.7)	5 (33.3)	15 (100)

한편으로 한국에서의 문화대혁명에 관한 연구는 다른 연구주제에 비해서 적다고도 할 수 없는데, 가령 중국 현대정치사의 일획을 그은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는 대약진 운동(大躍進運動, 1958~1960)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실적이 석사학위 1건과 학술지에 실린 2건의 글을 포함하면 모두 3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⁶⁾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에서의 문화대혁명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서방학계에서 중국연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학술지인 *The China Quarterly*와의 비교를 통해 잘 나타난다.⁷⁾ <표-1.2>는 각 시기별로 한국의 연구현황과 *The China Quarterly*의 연구를 비교하여 본 것이다.

*The China Quarterly*의 문화대혁명에 관한 연구는 지난 30년간 총 48건으로서 한국의 15건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일단 양적으로 보아 단일 학술잡지와 비교하여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한국에서 문화대혁명에 관한 연구가 얼마나 부족한

⁶⁾ 위 자료도 국회도서관의 전산자료를 통해 파악한 것으로서, 학위 논문은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인 김정재의 『초기 중국농촌인민공사의 성격연구』(1993)이며, 학술지에 실린 글은 자유아카데미연구논총에 발표된 김형국의 『대약진운동에 나타난 중공동원진략』(1978)과 춘천교대민족교육연구에 발표된 최동희의 『현대중공정치에 있어서의 대약진운동의 의의』(1981)가 있었다.

⁷⁾ *The China Quarterly*에 문화대혁명과 관련하여 실린 글은 총 54건이다. 이 중에서 필자는 48개의 글만을 비교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문학 희생자인 펑진(彭真)과 육정일(陸定一)에 대한 간단한 약력소개의 글인 Donald W. Klein의 "Victims of the Great Proletarian Cultural Revolution", No. 27 (April-June 1966), pp. 162-165와 단순관찰적 성격의 글인 Foreign Expert, "Eyewitness of the Cultural Revolution", No. 28 (October-December 1966), pp. 1-17, 그리고 불교·경극·단편소설·영화제작에 관한 각각 1편씩의 글인 Holmes Welch, "Buddhism since the Cultural Revolution", No. 40 (October-December 1969), pp. 127-136; Colin Mackerras, "Chinese Opera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No. 55 (July-September 1973), pp. 478-510; D. E. Pollard, "The Short Story in the Cultural Revolution", No. 73 (March 1978), pp. 99-121; Paul Clark, "Film Making in China: From the Cultural Revolution to 1981", No. 94 (June 1983), pp. 304-322 등 총 6편은 제외하였다.

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잡지는 문화대혁명이 발발한 1966년 당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1기의 경우 총 48편 중 43.8%인 21편의 연구업적을 보여 한국에서 아무런 연구성과가 없었던 것과는 비교된다.

한국학계의 문화대혁명에 대한 연구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렇듯 양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것 외에도 연구물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행하여야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검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들이 연구가 되었는지를 하나 하나 검토하는 작업으로 들어가 보겠다.

2. 주제별 연구현황

(1) 개괄

이제부터는 한국에서 문화대혁명에 대해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들이 연구되었으며, 각 주제별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도 *The China Quarterly*와의 비교분석방법이 동원되었다. 문화대혁명에 관한 연구를 주제별로 분류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기원·과정·영향의 3종류로 분류하여 <표-2.1>을 만들었으며, 이 범주로 분류하기 힘든 것은 기타로 치리하였다.⁸⁾

<표-2.1>

건수 (백분율)

주제 비교	기원	과정	영향	기타	총계
China Quarterly	11 (22.9)	17 (35.4)	16 (33.3)	4 (8.3)	48 (100)
한국의 연구현황	10 (66.7)	4 (26.7)	1 (6.7)	0 (0)	15 (100)

註 : 기타는 紅(紅)· 전(專)의 갈등이나 야전군 인맥이 아닌, 군의 형식적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대혁명 시기의 군제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Harvey Nelson, "Military Forces in the Cultural Revolution", *The China Quarterly*(이하 생략), No. 51 (July -September 1972), pp. 444-474; 행동주의(activism)를 정치적 목적달성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문화대혁명시기의 당의 전략이 1978년 광주(廣州)의 민주화 운동시기에도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Stanley Rosen, "Guangzhou's Democracy Movement in Cultural Revolution Perspective", No. 101 (March 1985), pp. 1-31; 문화대혁명에 대한 장기적 근원 연구와 개인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 그리고

⁸⁾ *The China Quarterly*에 실린 글 중 기원·과정·영향의 어느 한쪽으로만 명확히 분류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중첩된 글들이 많기 때문에 필자는 연구자가 이 3가지 범주중에 어느 쪽에 가장 중점을 두어 말하려고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독자마다 어느 정도 다른 분류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급속한 제도 복원의 원인 등 새로운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한 Lucian W. Pye, "Reassessing the Cultural Revolution", No. 108 (December 1986), pp. 597-612; 그리고 19세기이후 추진된 중국의 근대화를 급속화하려는 시도로서의 문화대혁명이 반관료주의 정신은 고양 하였지만 급진적이고도 봉건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후진성을 보여 결국에 가서는 실패하였음을 지적하는 Stuart R. Schram, "The Limit of Cataclysmic Change: Reflections on the Place of the 'Great Proletarian Cultural Revolution' in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 108 (December 1986), pp. 613-624의 글이다.

표를 통해 드러나는 바는 *The China Quarterly*가 기원(22.9%)·과정(35.4%)·영향(33.3%) 분야에 걸쳐 비교적 골고루 연구실적이 나타나는 데에 반해 한국의 경우는 주로 기원 분야(66.7%)에 치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연구의 양적인 부족이 주제의 다양화에 가한 제약으로 풀이 될 수 있겠다. 또 다른 한편으로 문화대혁명은 그 발생원인이 중요하며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함은 일면 당연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이 기원분야에만 집중해도 될 만큼 단기간에 그친 사건이 아니며 중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미친 영향도 지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화대혁명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에서 골고루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한국의 연구현황은 이러한 점에서 주제의 편중됨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연구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연구의 세부 주제별 분포를 보면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각 세부 주제별로 들어가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기원에 관한 연구

*The China Quarterly*의 기원연구는 <표-2.2>에서도 드러나듯이 권력투쟁적 관점이 4건인 36.4%로 가장 많지만, 그 외에도 이념, 정체차이, 노선투쟁, 정치통합, 소외의 극복이라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가 각각 1건씩 있어 전반적으로 다양한 시각이 소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2>

건수 (백분율)

주제 비교	권력 투쟁	이념	정책 차이	노선 투쟁	정치 통합	소외 극복	기타	총계
China Quarterly	4 (36.4)	1 (9.1)	1 (9.1)	1 (9.1)	1 (9.1)	1 (9.1)	2 (18.2)	11 (100)
한국의 연구현황	4 (40)	3 (30)	2 (20)	1 (10)	0 (0)	0 (0)	0 (0)	10 (100)

기타는 문화대혁명의 기원을 중국의 왕도정치적 유산에서 찾는 Benjamin Schwartz,

"The Reign of Virture: Some Broad Perspective on Leader and Party in the Cultural Revolution", No. 35 (July–September 1968), pp. 1–17 그리고, 혁명적 분위기가 소멸되고 사회가 제도화와 안정화로 변모해 나아가는 현실 속에서 전반적인 당의 동원능력쇠퇴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가 문화대혁명으로 나타났다고 Michael Oksenber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hinese Communist Revolution: The Ladder of Success on the Eve of the Cultural Revolution", No. 36 (October–December 1968), pp. 61–92의 글이다.

권력투쟁적 관점을 도입한 연구로는 Ellis Joffe(1966),⁹⁾ Philip Bridgman(1967, 1970),¹⁰⁾ Richard Baum(1969)¹¹⁾이 있으며, 이념적 접근을 한 연구로는 Stuart R. Schram(1971)¹²⁾의 글이 있다. 한편, Charles Neuhauser(1967)¹³⁾는 홍파 전의 갈등표출이라는 정책차이가, Paul J. Hiniker(1983)¹⁴⁾는 정치적 통합의 필요성이, 그리고 Bill Brugger(1986)¹⁵⁾는 대중의 소외의 극복이라는 측면이 문화대혁명을 야기시켰다고 본다. 그리고 Lowell Dittmer(1977)¹⁶⁾는 노선투쟁적 시각에서 이의 허와 실을 지적하고 있다.

⁹⁾Joffe는 의식개조와 권력투쟁적 시각을 결합하여 의식개조를 위한 정풍이 팽진동 상충부를 위협하게 되고, 이것이 권력투쟁으로 발전되었다고 본다. Ellis Joffe, "China in Mid-1966: 'Cultural Revolution' or Struggle for Power", No. 27 (April–June 1966), pp. 123–131.

¹⁰⁾Bridgman은 "Mao's 'Cultural Revolution': Origin and Development", No. 29 (January–March 1967), pp. 1–35에서 문화대혁명은 사회주의 교육운동의 연장으로서 1959년 여산 회의(廬山會議)부터 시작된 반대세력의 억제가 목표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Mao's Cultural Revolution: The Struggle to Consolidate Power", No. 41 (January–March 1970), pp. 1–25에서는 모택동이 파괴와 건설이라는 변증법적 논리를 통해 권력을 강화하려는 지속적 과정을 그리고 있다.

¹¹⁾Baum은 당내에서 모택동의 해제모니가 지속적으로 위협받아 왔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당기구와의 방법 동원과 아래로부터의 혁명의 시도)을 동원한 것이 문화대혁명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Richard Baum, "Revolution and Reaction in the Chinese Countryside: The Socialist Education Movement in Cultural Revolutionary Perspective", No. 38 (April–June 1969), pp. 92–119.

¹²⁾Stuart R. Schram, "Mao Tse-tung and the Theory of the Permanent Revolution", 1958–69, No. 46 (April–June 1971), pp. 221–244.

¹³⁾Neuhauser는 당내부의 문제, 즉 무규율한 기총당원 문제, 당기구와 그 역할에 대한 견해의 차이, 중앙이 지시한 운동(campaign)의 집행문제 등에서 기인한 정책차이가 문화대혁명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Charles Neuhause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the 1960s: Prelude to the Cultural Revolution", No. 32 (October–December 1967), pp. 3–36.

¹⁴⁾Hiniker은 당내부의 불협화음을 줄이고 이데올로기적 통합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문혁의 기원이라고 말한다. Paul J. Hiniker, "The Cultural Revolution Revisited: Dissonance Reduction or Power Maximization", No. 94 (June 1983), pp. 282–303.

¹⁵⁾Brugger는 탈집중화를 위한 대약진과 수정주의 극복을 위한 문화대혁명은 결국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대중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에 가서는 실패하였다고 보고, 진행중인 개혁도 소외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Bill Brugger, "From 'Revisionism' to 'Alienation', from 'Great Leaps' to 'Third Wave'", No. 108 (December 1986), pp. 643–651.

한편, 한국의 연구도 *The China Quarterly*와 마찬가지로 권력투쟁적 견해가 4건인 40%로 가장 많으며, 이념적 견해도 3건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정책차이에서 보는 시각이 2건, 노선투쟁적 시각이 1건이다. 권력투쟁적 관점을 도입한 연구로는 김하룡(1975), 김선형(1979),¹⁷⁾ 최의철(1982),¹⁸⁾ 그리고 한인희(1993)¹⁹⁾이며, 이 관점은 시기적으로도 널리 분포되어 있어 가장 각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념적 관점을 도입한 연구로는 배영희(1975), 박준홍(1976), 이승협(1992)이 있다.²⁰⁾ 한편, 이홍영(1979)과 고성빈(1985)은 정책차이의 관점을 도입하고 있으며,²¹⁾ 이희옥(1986)은 노선투쟁모델을 도입하고 있다.²²⁾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기원분야에 대한 연구는 *The China Quarterly*와 비교하여 양적인 측면에서는 뒤지지 않지만, 주제분포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있다고 할 것이다. *The China Quarterly*의 경우 한국의 위 4가지 시각외에도 정치통합, 소외의 극복 등 다양한 관점으로 이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문화대혁명과 같이 불분명한 부분이 많은 사건일수록 다각적 시각의 도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대혁명에 관한 연구물들도 기원에 대해 이외에도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가령 지금까지의 연구에 덧붙여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문화대혁명을 바라보려는 연구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²³⁾ 따라서, 한국의 문화대혁명의 기원에 대한

¹⁶⁾Dittmer는 노선투쟁론이 이론상 사회주의 발전과정에서 자본주의 노선과 사회주의 노선간의 계급투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중의 참여가 요구됨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중은 중앙 지도부의 권력목적을 위한 이용수단에 불과했다고 설명한다. Lowell Dittmer, "'Line Struggle' in Theory and Practice: The Origins of the Cultural Revolution Reconsidered", No. 72 (December 1977), pp. 675-712.

¹⁷⁾김선형은 탄생부터 정치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군파 이로 인한 당파의 끊임없는 권력갈등이 문화대혁명으로 표출되었다고 본다.

¹⁸⁾최의철은 모택동이 관료의 보수화를 막기위한 일환으로 계급투쟁을 전개한 것이 권력투쟁으로 비화화되었고 이것이 문화대혁명이라고 설명한다.

¹⁹⁾한인희는 문화대혁명이 결코 맑스주의가 말하는 정치·사상 혁명이 아니며 모택동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유소기(劉少奇)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²⁰⁾배영희와 이승협은 모택동의 계속혁명론적 관점에서 문화대혁명을 설명하고 있으며, 박준홍은 소련의 반스탈린 운동이 중공내에 파급되어 모택동으로 하여금 계속혁명론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대혁명을 야기시키게 하였다고 한다.

²¹⁾이홍영과 고성빈은 중국의 국가건설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이데올로기(紅)와 조직(專) 중에 어느 것을 중시해야 하느냐는 정책 딜레마가 문화대혁명을 야기시켰다고 본다.

²²⁾이희옥은 문화대혁명이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고 당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혁명주의 노선과 수정주의 노선간의 투쟁이라고 설명한다.

²³⁾이와 관련하여서는 *China Information*, Vol. XI, Nos. 2/3 (Autumn/Winter 1996-1997)를 볼 것. 여기서는 문화대혁명을 중국적 전통과 공산주의적 사고의 결합으로 보는 시각과 Lowell Dittmer, "Reconstructing China's Cultural Revolution" 희생양의 설정이라는 시각에서 당의 정치문화, 전통종교, 개인적 심리를 중시하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Tony Saich,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Barend ter Haar, "China's Inner Demons: The Political Impact of the Demonological Paradigm"; Edward Friedman, "Modernity's Bourgeoisie:

연구는 기존연구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나아가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3) 과정에 관한 연구

문화대혁명의 과정에 관한 연구를 비교적 포괄적으로 정치·군대·사회·경제 그리고 특정지역에 대한 연구라는 범주로 분류해 보면 <표-2.3>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The China Quarterly*의 경우, 정치분야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각각 35.3%와 29.4%를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군대·사회·경제에 관한 글들이 2건씩 고루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전개과정에 관한 글로서는 Stephen, Jr. Uhalley(1966),²⁴⁾ Philip Bridgham(1968),²⁵⁾ Kikuzo Ito and Minoru Shibata(1968),²⁶⁾ Jurgen Domes(1977)²⁷⁾와 Andres D. Onate(1978),²⁸⁾ Hong Yung Lee(1979)²⁹⁾의 연구를 들 수 있겠다. 군에 관한 글은 Philip Bridgham(1973),³⁰⁾ Gorden White(1980)³¹⁾의 연구가, 사회적 전개과정에 관한 글로서는

Victim or Victimizer?"

²⁴⁾Uhalley는 오함(吳晗)과 등척(鄧拓)에 대한 문예비판이 중앙선전부와 북경시당위원회 그리고 북경대학으로 번져가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Stephen, Jr. Uhalley, "The Cultural Revolution and the Attack on the 'Three-Family Village'", No. 27 (April-June 1966), pp. 149-161.

²⁵⁾Bridgham은 1967년의 탈권투쟁이 단순 권력투쟁으로 전락하여 모택동이 초기에 의도하였던 대중동원을 통한 수정주의 극복이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Philip Bridgham, "Mao's Cultural Revolution in 1967: The Struggle to Seize Power", No. 34 (January-March 1968), pp. 6-37.

²⁶⁾Kikuzo Ito와 Minoru Shibata는 대중들이 비자발적이고 이해관계와 물질주의에 얹매여 결국 모택동의 대중노선에 대한 믿음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Kikuzo Ito and Minoru Shibata, "The Dilemma of Mao Tse-tung", No. 35 (July-September 1968), pp. 58-77.

²⁷⁾Domes는 화국봉시기의 권력투쟁과정을 균열단계(factionalization stage)와 분파단계(factionalism stage)로 구분하여 중국정치의 성격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Jurgen Domes, "The 'Gang of Four' and Hua Kuo-feng: Analysis of Political Events in 1975-76", No. 71 (September 1977), pp. 473-497.

²⁸⁾Andres D. Onate, "Hua Kuo-feng and Arrest of the 'Gang of Four'", No. 75 (September 1978), pp. 540-565.

²⁹⁾Hong Yung Lee는 평등이라는 이상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택동이 동원한 전략은 반대세력의 결집과 군의 동원 그리고 보수적 대중조직의 동원이라는 현실주의적 선택이었다고 설명한다. Hong Yung Lee, "Mao's Strategy for Revolutionary Change: A Case Study of the Cultural Revolution", No. 77 (March 1979), pp. 50-73.

³⁰⁾Bridgham은 임표의 몰락에 의해 군이 아닌 민에 의해 지도되는 당체제로의 전환은 곧 문화대혁명이 파괴에서 재건의 시기로 변화해 갑을 의미한다고 한다. Philip Bridgham, "The Fall of Lin Piao", No. 55 (July-September 1973), pp. 427-449.

³¹⁾White는 사회통제기능과 사회적인 특권적 지위의 유지를 위한 집단적 압력의 행사라는 당파 복워군인(demobilized soldiers)의 정치적 상호작용이 당의 정착후원정책(resettlement policy)를 만

John Israel(1967),³²⁾ Anita Chan·Stanley Rosen·Jonathan Unger(1980)³³⁾의 연구, 그리고 경제에 관한 글은 Marianne Bastid(1970),³⁴⁾ Robert Michael Field(1986)³⁵⁾의 연구가 있다. 특정지역의 전개과정에 대한 글로는 June Dreyer(1968),³⁶⁾ Paul Hyer and William Heaton(1968),³⁷⁾ Thomas W. Robinson(1971),³⁸⁾ Hong Yung Lee(1975),³⁹⁾ Keith Forster(1986)⁴⁰⁾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들어 냈고, 이것이 문화대혁명과정 중 대부분의 복원군인(復員軍人)들이 보수적 성향을 나타낸 원인이 되었음을 분석하고 있다. Gordon White, "The Politics of Demobilized Soldiers from Liberation to Cultural Revolution", No. 82 (June 1980), pp. 187-213.

³²⁾Israel은 20년대 중반에 탄생한 중국공산주의청년단(中共共青團, Communist Youth League)이 신중국 건설이후의 정치환경 변화에 따라 회원모집이 변화하게 되고, 이것이 기득권과 비기득권 학생간의 갈등을 내재시켰다고 본다. John Israel, "The Red Guards in Historical Perspective: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Chinese Youth Movement", No. 30 (April-June 1967), pp. 1-32.

³³⁾Chan등은 문혁당시 대부분의 광동학생들이 사회적 지위상승의 길이 좁았고, 진학기준도 개인적 능력보다는 가정출신과 정치적 환경을 중시하게 되어 이것이 광동지역 흥위병의 분파와 충돌을 야기시켰다고 설명한다. Anita Chan, Stanley Rosen, Jonathan Unger, "Students and Class Warfare: The Social Roots of the Red Guards Conflict in Gauangzhou (Canton)", No. 83 (September 1980), pp. 397-446.

³⁴⁾Bastid는 당시의 상황이 농촌과 도시의 인력수급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했고,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집단주의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는 인력이 요구되었다고 지적한다. Marianne Bastid, "Economic Necessity and Political Ideals in Educational Reform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No. 42, (April-June 1971) pp. 16-45.

³⁵⁾Field는 문화대혁명 과정 중의 산업성장에 대하여는 기술·자원·노동·자본·소비·투자 등 다방면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올바른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Robert Michael Field, "The Performance of Industry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Second Thoughts", No. 108 (December 1986), pp. 625-642.

³⁶⁾Dreyer는 문화대혁명이 차별없는 평준화를 이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강서·신장·티벳 등 소수민족이 많고 우대정책을 누렸던 지역은 이에 동참하기를 꺼려했다고 설명한다. June Dreyer, "China's Minority Nationalities in the Cultural Revolution", No. 35 (July-September 1968), pp. 96-109.

³⁷⁾Hyer와 Heaton은 내몽고 지역을 연구하여 문화대혁명 과정 중의 지역민족주의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Paul Hyer and William Heaton, "The Cultural Revolution in Inner Mongolia", No. 36 (October-December 1968), pp. 114-128.

³⁸⁾Robinson은 무한지역의 반동사건을 통해 질서유지를 위한 군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던 상황하에서 중앙이 이 사건을 무마시키게 되고, 결국 문화대혁명이 수습의 길로 전환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Thomas W. Robinson, "The Wuhan Incident: Local Strife and Provincial Rebellion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No. 47 (July-September 1971), pp. 413-438.

³⁹⁾Hong Yung Lee는 일반적으로 급진주의가 이태울로기에 경도되어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나, 문화대혁명 기간 중의 급진주의는 부패한 관료주의와 출신배경을 문제삼는 것을 향한 불만의 표출과 이의 해결이라는 현실적 목적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Hong Yung Lee, "The Radical Students in Kwangtung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No. 64 (December 1975), pp. 645-683.

그런데, 한국의 경우 정치(50%)와 군대(25%)에 관한 글,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상해지역에 관한 글을 제외하고는 다른 분야에 대한 연구는 없어 *The China Quarterly*의 다양한 연구와는 비교된다. 정치적 과정에 관한 글로는 김하룡(1976)⁴⁰⁾과 고성준(1978)⁴¹⁾의 연구가 있으며, 군에 관한 연구로는 김성애(1993)⁴²⁾의 글이 있다. 한편, 특정지역과 관련된 연구로서는 김경옥(1994)⁴³⁾이 있다.

<표-2.3>

건수 (백분율)

주제 비교	정치	군대	사회	경제	특정지역	총계
China Quarterly	6 (35.3)	2 (11.8)	2 (11.8)	2 (11.8)	5 (29.4)	17 (100)
한국의 연구현황	2 (50)	1 (25)	0 (0)	0 (0)	1 (25)	4 (100)

문화대혁명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는 사건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물들의 축적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전개된 사건의 경우 이러한 작업은 더욱 필요할 터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껏 4건의 실적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나타나 듯이 이로부터 전개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할 것이다. 최근 외국 학계는 기존의 연구에 만족하지 않고 그동안 연구되지 못한 측면

⁴⁰⁾Forster는 절강지역을 예로 들어, 중앙의 권위가 지방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의 침투가 쉬웠음을 보여주고 있다. Keith Forster, "The Politics of Destabilisation and Confrontation: The Campaign against Lin Biao and Confucius in Zhejiang Province, 1974", No. 107 (September 1986), pp. 433-462.

⁴¹⁾김하룡은 문화대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감에 따라 심화된 당내의 대립과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극좌파가 군내의 당권파를 축출해야 한다는 구호를 내세웠다는 이유로 숙청되어야 했던 이유를 당시의 정치상황과 결부시켜 설명하고 있다.

⁴²⁾고성준은 문화대혁명 초기 전국의 공식체널인 매스미디어가 유소기 일파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모택동은 인민대중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했고, 동시에 모택동 자신이 전국적 대중운동에 있어서 매스미디어는 대중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부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대자보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⁴³⁾김성애는 군의 정치성, 즉 정치에 봉사하는 역할로서의 군이 모택동의 군사상이며, 이것은 문화대혁명 과정중에서도 모택동이 군을 제한적으로 개입시킨 것에도 드러난다고 지적한다.

⁴⁴⁾경우는 상해지역의 문화대혁명 전개과정을 두시기, 즉 당기구의 무력화와 대중의 정치적 진출 시기(1966년 11월-12월)와 조반진영 내부의 운동의 주도권을 놀리싼 새로운 대립관계의 형성시기(1967년 1월-2월)로 구분하고, 상해의 문화대혁명은 초창기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성장해온 관료제를 공격의 목표로 삼았지만 이를 주도한 대중 역시 군대화 과정에서 파생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제약당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학계의 연구부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즉, 1996년 7월 홍콩에서 개최된 문화대혁명 국제회의와 홍콩 중문대학(中文大學)의 중국문화연구소(中國文化研究所)가 간행하는 『二十一世紀』가 최근 실은 특집은 그동안 연구 되지 못했던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 중국공안인민부대,⁴⁵⁾ 농촌지역,⁴⁶⁾ 폭력,⁴⁷⁾ 굽진 단체의 사조(思潮),⁴⁸⁾ 외국인 조반파(造反派)⁴⁹⁾ 등에 대한 연구물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4) 영향에 관한 연구

문화대혁명이 중국전체에 끼친 영향은 매우 세부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분석의 편의상 정치·외교·군대·경제·사회·특정지역·외국으로 나누어 볼 때 <표-2.4>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때, *The China Quarterly*의 경우 정치와 사회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 글이 각각 31.2%와 25%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많지만, 그 외에도 비교적 폭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에 미친 영향에 관한 글로는 Tang Tsou(1969),⁵⁰⁾ Donald Klein(1968),⁵¹⁾ Gordon Bennett(1973),⁵²⁾ Byung-joon Ahn(1974),⁵³⁾ 그리고 Richard K. Diao(1970)⁵⁴⁾의 연구가 있

⁴⁵⁾ 1996년 7월 4일부터 6일까지 홍콩과학기술대학(香港科學技術大學)에서 개최된 문화대혁명 국제학술회의 자료는 이 회의에 참가한 정재호 교수가 제공해 준 것이다. 이 자료는 아직 출간되지 않았다. Michael Schoenhals, "Public Security Forces in the Cultural Revolution",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he Cultural Revolution in Hong Kong (Hong Kong Conference Paper, 이하 HKCP).

⁴⁶⁾ Jonathan Unger, "The Cultural Revolution in the Villages", HKCP.

⁴⁷⁾ Emily Honig, "The Gender of Violence: Reassessing the Red Guards", HKCP; 王友琴, 打老師和打同學之間, 『二十一世紀』, 總第三十七期 (1996年 10月號), pp. 35-42.

⁴⁸⁾ Shaoguang Wang, "The 'New Trends of Thoughts' among Radical Groups", HKCP; 宋永毅, 文化大革命中的異端思潮, 『二十一世紀』, 總第三十六期 (1996年 8月號), pp. 54-64; 徐友漁, 異端思潮和紅衛兵的思想轉向, 『二十一世紀』, 總第三十七期 (1996年 10月號), pp. 52-64.

⁴⁹⁾ 何蜀, 文革中的「外國造反派」, 『二十一世紀』, 總第三十七期 (1996年 10月號), pp. 43-51.

⁵⁰⁾ Tang Tsou는 제도적 측면에서 당기구와 정부 관료조직의 붕괴, 인적인 측면에서 지식인파의 단절로 인한 지도층의 권위붕괴가 안정적인 정치관계를 파괴시켰다고 본다. Tang Tsou, "The Cultural Revolution and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No. 38 (April-June 1969), pp. 63-91.

⁵¹⁾ Klein은 문혁의 공격대상이 주로 12·9 도당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국무원의 인사변동에 준 영향은 적었다고 한다. Donald Klein, "The State Council and the Cultural Revolution", No. 35 (July-September 1968), pp. 1-17.

⁵²⁾ Bennett은 지방군구와 성의 인사변동을 볼 때 문혁이 지방주의를 야기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Gordon Bennett, "Military Regions and Provincial Party Secretaries: One Outcome of China's Cultural Revolution", No. 54 (April-June 1973), pp. 294-307.

⁵³⁾ B를 형성시키려는 시도는 쇠퇴할 것이고, 분열된 사회의 재통합과 정치질서의 안정화를 위해 제도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본다. Byung-joon Ahn, "The Cultural Revolution and China's Search for Political Order", No. 58 (April-June 1974), pp. 249-285.

⁵⁴⁾ Diao는 문화대혁명이 경제엘리트에게 끼친 피해를 분석하고 고위급 당원인 경우, 부서별로

다. 외교에 관한 글로는 Melvin Gurto(1969)⁵⁵⁾와 Stephen FitzGerald(1969),⁵⁶⁾ 군에 관한 글로는 Ellis Joffe(1973)⁵⁷⁾의 연구가 있다. 경제적 영향에 관한 글로는 Dwight H. Perkins(1967)⁵⁸⁾과 Audrey Donnithorne(1972)⁵⁹⁾의 연구가 있고, 사회적 영향에 관한 글로는 Frederic C. Teiwes(1974),⁶⁰⁾ Robin Munro(1980),⁶¹⁾ David M. Raddock(1979),⁶²⁾ 그리고 Thomas B. Gold(1985)⁶³⁾의 연구가 있다. 특정지역에 준 영향에 관한 글로는 Robert Michael Field(1978)⁶⁴⁾가 있고, 국외적 파급효과로는 Richard W. Wilson and Amy A. Wilson(1970)⁶⁵⁾의 연구가 있다.

농업부, 임업부, 공업교통부의 소속인사가, 출신배경으로는 부르조와 가정출신이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북방지역 출신인 경우, 그리고 장기근속 엘리트인 경우 피해가 커던 반면, 임표의 제4야전군 인맥인 경우에는 피해가 적었다고 설명한다. Richard K. Diao, "The Impact of the Cultural Revolution on China's Economic Elite", No. 42 (April-June 1970), pp. 16-45.

⁵⁵⁾Gurto는 문화대혁명이 외교부와 외교정책에 야기시킨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한다. Melvin Gurto, "The Foreign Ministry and Foreign Affairs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No. 40 (October-December 1969), pp. 65-102.

⁵⁶⁾FitzGerald는 문화대혁명이 화교와 화교정책에 미친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 Stephan FitzGerald, "Overseas Chinese Affairs and the Cultural Revolution", No. 40 (October-December 1969), pp. 65-102.

⁵⁷⁾Joffe는 군에 대한 숙청이 군진체가 아닌 임표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지방군 세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통해 임표의 몰락이 군에 미친 영향은 적었다고 한다. Ellis Joffe, "The Chinese Army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The Effects of Intervention", No. 55 (July-September 1973), pp. 450-477.

⁵⁸⁾Perkins는 문화대혁명이 경제적으로 미친 영향이 적었으며, 농업분야에서는 오히려 증가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Dwight H. Perkins, "Economic Growth in China and the Cultural Revolution", No. 30 (April-June 1967), pp. 33-48.

⁵⁹⁾Donnithorne은 문화대혁명 이후 지방정부나 기업을 단위로 하는 보호주의적 자립경제가 출현했다고 설명한다. Audrey Donnithorne, "China's Cellular Economy: Some Trends since the Cultural Revolution", No. 52 (October-December 1972), pp. 605-619.

⁶⁰⁾Frederick C. Teiwes, "Before and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No. 58 (April-June 1974), pp. 332-348.

⁶¹⁾Munro는 문화대혁명 중에 노동자·농민·군인에게 부여하였던 무시험 등록제가 결국에 가서는 철폐됨을 통해 교육제도의 복구를 설명하고 있다. Robin Munro, "Settling Accounts with the Cultural Revolution at Beijing University 1977-1978", No. 82 (June 1980), pp. 187-213.

⁶²⁾Raddock은 문화대혁명 이전과는 다른 평등주의 지향의 새로운 세대가 출현함에 주목하고 있다. David M. Raddock, "Between Generations: Activist Chinese Youth in Pursuit of a Political Role in the San-Fan and in the Cultural Revolution", No. 79 (September 1979), pp. 511-528.

⁶³⁾Gold는 문화대혁명 이후 과거의 동지개념보다는 전통적 인간관계가 부활하고 있으며, 개혁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Thomas Gold, "After Comradeship: Personal Relations in China Since the Cultural Revolution", No. 104 (December 1985), pp. 657-675.

⁶⁴⁾Robert Michael Field, "The Impact of 'Gang of Four' on Industrial Output in Kweichow", No. 73, pp. 137-139.

⁶⁵⁾Richard W. Wilson and Amy A. Wilson, "The Red Guards and the World Student

한국에서 문화대혁명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양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드러나듯이 *The China Quarterly*와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홍위병의 정치참여와 정치의식의 형성이 현재 중국의 정치문화를 어떻게 변화시켰지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분석한 고영근(1994)⁶⁶⁾의 1건의 글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의 중국연구가 단절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학계의 학문적 기반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지

<표-2.4>

건수 (백분율)

주제 비교	정치	외교	군대	경제	사회	특정지역	외국	총계
China Quarterly	5 (31.2)	2 (12.5)	1 (6.3)	2 (12.5)	4 (25)	1 (6.3)	1 (6.3)	16 (100)
한국의 연구현황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1 (100)

속적으로 연구물들이 배출된 후 이것이 축적되어 다른 주제로 자연스럽게 전환을 이루어야 굳건해 질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문화대혁명의 영향에 관해서 이렇듯 연구가 없다는 사실은 어쩌면 한국학계의 중국연구의 기반이 튼튼하다고 말하기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듯 싶다. 더욱이 현재의 중국사회가 문화대혁명이 정치·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끼친 영향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연구물의 축적은 연구의 연속성을 위해서 마땅히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The China Quarterly*에 나타난 영향에 관한 연구로부터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 가령, 문화대혁명이 혼란보다는 정치적으로 안정적 관계의 형성을 중시하게 되는 풍조를 놓게 했다고 보는 Tang Tsou와 Byung-joon Ahn의 글로부터 현재의 중국정치를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⁶⁷⁾ 문화대혁명이 경제적으로 끼친 영향에 관한 Dwight H. Perkins와 Audrey Donnithorne의 글로부터 더 발전시켜 나아가 경제개방정책과의 관련성을 심도있게 살펴보는 연구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대혁명이 상반된 행태변화(평등주의와 전통적 인간관계의 부활)를 가져왔다고 한다면 이것이 현재 중국 인민들에게 어떻게 나

Movement", No. 42 (April-June 1970), pp. 88-104.

⁶⁶⁾고영근은 학생운동의 주체로서 홍위병의 발생배경과 조직, 참여의 형태, 그리고 정치적 경향을 설명하고, 청소년기를 정치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정치 제일주의의 환경 속에서 성장해 현재 40대 장년층으로서 중국의 정치·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제3세대들이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문화를 지니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⁶⁷⁾이러한 성격의 대표적인 글로서 Lowell Dittmer, "Reconstructing China's Cultural Revolution", *China Information*, Vol. XI, Nos. 2/3 (Autumn/Winter 1996-1997), pp. 1-20을 참조할 것.

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자료이용현황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에서의 문화대혁명 연구의 양적인 측면과 주제별 경향을 살펴보았고 문제점도 많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정도로 연구의 문제점이 모두 드러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각각의 연구가 어떠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자료의 이용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고찰도 일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중국과 같이 투명성이 낮은 국가일 수록 자료가 중요시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한국의 문화대혁명 연구가 어느 정도 노력의 성과불인자에 대해 간접적으로 평가해 보는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연구자들이 문화대혁명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 글을 완성하려 했는가 하는 분석작업은 한국에서의 문화대혁명 연구의 질을 평가할 수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두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이러한 평가작업을 위한 조작화(operationalize)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다양한 조작화 방법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필자는 15건의 문화대혁명 연구물들의 1차 자료이용현황을 조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1차 자료 이용량의 많고 적음이 연구의 질을 그대로 대변해 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보다 많은 1차문헌을 이용하여 글을 쓰고자 하는 시도가 2차·3차문헌에 주로 의존한 것보다도 독자적인 연구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며, 이는 또한 연구자의 노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무엇을 1차문헌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문화대혁명에 관한 1차 자료는 많지가 않다. 이는 중국정부가 안보등의 이유로 대외적으로 비밀유지에 신경을 썼고 출판물에도 제약을 많이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1979년 이전까지는 중국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외부의 연구자들이 불완전한 2·3차 자료에 의존하였기 때문인데,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하였다.⁽⁶⁸⁾ 어쨌든, 필자는 문화대혁명 당시의 상황을 그래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중국내부에서 발간되는 신문들을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이를 통한 분석작업이 15건의 연구에 대한 1차 자료이용현황을 모두 대변해 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과거 한국의 문화대혁명 연구경향의 한 측면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분석대상이 된 신문들은 인민일보(人民日報)·해방군보(解放軍報)·광명일보(光明日報)·홍기(紅旗)이며,⁽⁶⁹⁾ 결과는 <표-3>과 같이 나타났다.

⁽⁶⁸⁾ 1979년 이후에야 중국내에서도 정치·사회·경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분석을 실은 서적과 간행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瞭望』이다.

Michel Oksenberg, "Politics Takes Command: An Essay on the Study of Post-1949 China", Roderick MacFarquhar and John K. Fairbank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4,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art 1: *The Emergence of Revolutionary China 1949-196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 543, 551-552.

⁽⁶⁹⁾ 문화대혁명에 관한 1차자료로는 이외에도 중공문화대혁명중요문건회편(대북: 중공연구잡지사 1973), 모택동선집(북경: 인민출판사 1966), 모택동전후저작집(동경: 삼일서방 1958), 모택동어록(동

표를 통해 나타난 바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선정된 1차 자료에 대한 이용도가 전혀 없는 글이 7건이나 되어 반수 정도를 차지하였고, 그 중 석사학위 논문이 대부분인 5건을 차지하였다. 석사학위 논문이 선정된 1차 자료를 이용한 것은 80년대 중반의 이희옥(1986)의 글과 90년대 중반의 김경옥(1994)의 글 뿐이다. 둘째, 박사학위 논문인 김하룡(1975)과 김선형(1979)의 경우 20개와 49개를 차지하여, 이 두사람의 1차 자료에 대한 이용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의 이용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어떠한 경향도 찾아 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도식적 분석이 한국의 연구물들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위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한가지 사실은 짐작할 수 있겠다. 즉, 지금껏 한국에서의 문화대혁명에 대한 연구물들의 자료 이용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료의 이용도는 연구자들의 자료수집 노력을 보여줄 수 있으며 독자적인 연구물들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연구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할 것이다.

<표-3>

자료 연구자	인민일보	해방군보	광명일보	홍기	총계	비 고
배영희(1975)	0	0	0	0	0	이화여대 석사학위
김하룡(1975)	8	2	0	10	20	고려대 박사학위
김하룡(1976)	4	0	0	0	4	한양대 중소연구
박준홍(1976)	0	0	0	0	0	동국대 석사학위
고성준(1978)	6	0	0	1	7	자유아카데미연구논총
김선형(1979)	28	17	0	4	49	동국대 박사학위
이홍영(1979)	1	0	0	0	1	한양대 중소연구
최의철(1982)	0	0	0	0	0	한양대 중소연구
고성빈(1985)	0	0	0	0	0	경희대 석사학위
이희옥(1986)	0	0	4	2	6	외국어대 석사학위
이승협(1992)	0	0	0	0	0	서울대 석사학위

경: 하출서방 1967), 모택동군사어문록(동경: 외교출판사 1971), 유소기주요저작집(동경: 삼일서방 1960), 주은래전집(홍콩: 자연출판사 1971), 홍위병참고자료(홍콩: 자연출판사 1967) 등이 이용되었다.

자료 연구자	인민일보	해방군보	광명일보	홍기	총계	비고
김성애(1993)	0	0	0	0	0	부산대 석사학위
한인희(1993)	0	2	0	0	2	건국대 중국연구
고영근(1994)	0	0	0	0	0	부산외대 중소연구
김경옥(1994)	6	0	0	4	10	서강대 석사학위
총 계	55	19	4	21	99	

그리나, 한국에서의 문화내혁명연구에 대한 자료이용부족의 문제점을 오직 연구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외국과는 달리 연구의 제약을 가하는 환경, 즉 객관적 조건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중국이 비수교국이며 공산국가라는 이유가 중국을 방문하여 직접적으로 자료를 구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나마 한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라도 제약이 많았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문화혁명을 포함한 중국연구를 위한 1차 자료의 접근은 90년대 초반까지 반공적 이데올로기의 제약때문인지 특정인과 특정장소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즉, 당시의 중국연구를 위한 1차 자료는 국방부나 통일원 등과 같은 국가의 정보채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료와 특별히 가를 받은 연구기관(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나 한양대 중소연구소), 그리고 국회의 3곳이었다. 그리고, 이곳으로부터 자료를 구하려면 연구자는 '불온자료취급인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당시 자료접근이 용이했던 연구자라고 해서 자료를 풍부히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령 자료접근이 훨씬 쉬워졌다고 할 수 있는 현재에도 중국연구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려고 해 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중국관련자료가 아직 까지도 매우 부족함을 절실히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분명 당시 중국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부족과 더불어 문화대혁명연구를 포함한 중국연구 전반에 걸친 객관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연구자들이 이러한 자료접근의 어려움만을 탓하여 연구의 양과 질을 이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것이, 외국의 학자들도 과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간접적으로 중국을 연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려는 노력을 보였기 때문이다.⁷⁰⁾ 더욱이 한종수교가 이루어진 90년대 이후 중국내부에서 자료를 구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어려운 일이 아니며, 한 차원 더 나아가 현지연

⁷⁰⁾ 그 대표적인 것이 피난민을 대상으로 한 홍콩인터뷰이며, 이러한 간접적 연구방법의 동원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는 Martin King Whyte, "On Studying China at a Distance", in Anne F. Thurston and Burton Pasternak (eds.), *The Social Science and Field Work in China: Views from the Field* (Boulder: Westview, 1983), pp. 63-82와 Andrew G. Walder, "The Hong Kong Interviews: An Essay on Method", in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pp. 255-269를 참조할 것.

구(fieldwork)에 의한 연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제는 연구자의 자료수집 노력이 중요시되었다고 본다면 과거처럼 자료접근의 어려움만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자료의 공유와 축적이라는 문제가 있겠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과거 문화대혁명 연구를 위한 1차자료의 이용은 소수 몇 명에게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자료를 많이 확보할 수 있었는지는 확인하지는 못했고, 얼마나 자료를 다른 연구자와 공유하려 했으며 다른 연구자들도 이들로부터 자료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자료의 공유와 이를 통한 다양한 연구물들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문화대혁명연구를 포함한 중국연구의 활성화에 제약을 가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앞으로 자료의 공유를 위한 연구자들의 협조체계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 자료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하나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문화대혁명이라는 방대하고도 긴 역사적 사건을 연구하기 위하여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료축적 작업을 하나의 연구 성과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하며, 이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이 방면에도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못느끼게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자료의 공유와 축적이라는 문제도 한국에서의 문화대혁명연구를 더욱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중국연구 전체에 제약을 가하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근거하여 앞으로 자료의 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China Quarterly*에 이용된 자료를 보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외국정부의 정보기관 자료나⁷¹⁾ 일본신문, 그리고 중국내에서 발간되는 신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기존의 이용자료에 덧붙여 중앙에서 발행되는 신문 뿐만 아니라 지방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연구와 홍콩 인터뷰에 토대를 둔 연구물들이 나오고 있다. 전자를 대표하는 글로서는 Gordon White(1980), Keith Forster(1986)의 연구가, 후자를 대표하는 글로서는 Anita Chan · Stanley Rosen · Jonathan Unger(1980), 그리고 Stanley Rosen(1985)의 연구를 들 수 있겠다.

한편,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대혁명에 관한 연구물들을 보면 몇 가지 자료이용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80년대의 추세를 이어 지방지에 대한 이용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는 문화대혁명의 세부적 전개과정을 연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⁷²⁾ 둘째, 과거 외국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자료를 이용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제는 1979년 이후 중국내부에서

⁷¹⁾ 영국 BBC가 제공하는 Summary of World Broadcasts (Far East) (SWB/FE), 미국의 홍콩 주재 총영사관에서 제공했던 Survey of the China Mainland Press(SCMP), Selections from China Mainland Magazines(SCMM), Current Background(CB)가 대표적이다. 또한,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s(FBIS)가 제공하는 라디오 녹음 자료와 Joint Publication Research Service(JPRS)의 번역자료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⁷²⁾ 가령, Andrew G. Walder, *HKCP*; Shaoguang Wang, *HKCP*; 華林山, 政治迫害與造反運動, 『二十一世紀』, 總第三十六期 (1996年 8月號), pp. 46-53를 참조할 것.

출판되는 글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문화대혁명에 대해 접근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셋째, 문화대혁명 당시에 쓴 자료들을 발굴하여 간접적으로 연구를 뒷받침 하려는 작업도 보인다. 가령, Michael Schoenhals(HKCP)는 문화대혁명 기간 중의 인민공안부대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북경 홍위병의 『文革簡訊』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넷째, 과거의 홍콩 인터뷰와는 달리 중국내부에서 당시의 실존인물들과의 인터뷰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⁷³⁾

이러한 외국학계의 최근 자료이용 현황은 한국학계에 다음과 같은 노력이 있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기존에 있는 1차 자료를 수집하고 이용하려는 노력외에도 구체적인 문화대혁명 전개과정의 연구를 위하여 중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수집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는 것과 보다 생생한 연구를 위하여 현재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홍위병 세대와의 인터뷰를 이용한 연구도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이다.

III.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문화대혁명의 한국적 연구현황을 비교와 간접적 이해를 위한 조작화 등을 통해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었다. 요약하면, 한국의 문화대혁명 연구의 문제점은 양적인 부족과 다양한 주제연구의 부족, 그리고 연구자들의 노력의 부족에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지적을 통해 앞으로 한국의 문화대혁명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해서 문화대혁명 연구가 곧바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단 문화대혁명 연구에 한정되지 않고 중국연구 전반에 걸친 한국적 문제점으로서 이미 여러 글들을 통해서 지적된 취약한 중국 연구환경(가령, 연구인력과 연구비 지원의 문제) 때문이다.⁷⁴⁾ 결국,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미 지나가 버린 사건인 문화대혁명 연구에까지 연구인력과 연구비가 투여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옴직하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은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과거지사로만 이해하고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의 중국을 이해하는데에 있어서 문화대혁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최근에 외국학계에서 기존의 연구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에서의 연구가 다시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⁷⁵⁾ 국제학술회의 개최등을 통해서 연구를 활성화하려는

⁷³⁾ Jonathan Unger, HKCP와 Emily Honig, HKCP가 대표적이다.

⁷⁴⁾ 최명, 중국연구현황: 특히 사회과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공산권연구백서』(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편, 1989), pp. 48-52; 문홍호, 한국에서의 중국연구동향: 중소연구에 발표된 중국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15권 제2호 (1991 여름), p. 291; 전병곤, 중국연구의 방법과 과제, 『중국연구』, 제15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1994), p. 192; 시사저널, 1992년 10월 1일, pp. 78-80.

⁷⁵⁾ 왕소광은 1981년 중국당국의 공식적인 결정인 『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에 의해 학문적으로도 종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문화대혁명 연구의 시야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작업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학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가 제

움직임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학계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물의 배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e Present State and Future Needs of Korean China Studies: the Cultural Revolution

Kim Sung-K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rty years have passed since China's Cultural Revolution broke out in 1966. To assert that research done on the subject by Korean scholars is far behin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work produced by foreign academe, particularly the West's, may not be an exaggeration. It is also no hyperbole to think that China studies in general in Korea suffers from the same backwardness. In part, this is caused by the obvious difficulties of studying a closed Communist nation like China of the past, but perhaps the more important reason is the lack of efforts by Korean scholars to do the research. One cursory glance at the bibliographic entries of their publications reveals a glaring lack of primary sources. Recently, China scholars outside Korea have begun to seriously re-examine the Cultural Revolution. New research methods and access to critical research materials since 1979 in China and the promise of better understanding the real causes of the Cultural Revolution have been the initial impetus. Better grasp of the Cultural Revolution is indispensable to understanding today's China. In this respect, Korean China scholars are advised to seriously rethink their study of the Cultural Revolution.

김성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석사과정. Tel: 880-6310(O), 886-9397(H)

시하는 바는 앞으로의 문화대혁명 연구가 ①기존의 연구분석틀을 탈피하고 ②이론적 사고를 하도록 노력하며 ③문화대혁명의 사회적 근원을 탐구하여야 하며 ④상층부의 정치권력투쟁적 시각을 짐진적으로 탈피할 것과 ⑤미시적 관점에서 문화대혁명의 정치투쟁 논리를 이해하고 ⑥각 지역의 문화대혁명사를 연구하여야 하며 ⑦문화대혁명의 경제사·문화사·사회사적 연구를 중시하고 ⑧문화대혁명이 끼친 세계적 영향을 연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王紹光, 拓展文革研究的視野, 『二十一世紀』, 總第三十一期 (1995年 10月號), pp. 92-102. 이 자료는 정재호 교수가 제공해 준 것이다.